



03

도사체험 작품들

자연을 벗 삼아 흙을 빚는 진례도예마을 도자기 체험

승용차를 몰고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진례나들목으로 들어가면 길가 여기저기에 도예방이 하나 둘씩 나타난다. 분청사기 도예촌으로 2000년 전 가야도자기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진례도예마을이다.

조선시대 때 생활자기로 변형하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쇠퇴기를 겪었던 이 마을에 약 40여년 전부터 전국의 도공들이 다시 하나 둘씩 모여들어 생활도자기의 맥을 복원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길천도예, 수로요 등 다수의 도예방에서 아동, 학생, 교사, 직장인, 각종 단체들을 대상으로 도사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또 사랑과 영혼에서 나오는 물레도 직접 돌려볼 수 있고, 나만의 개성과 마음이 듬뿍 담긴 도자기 작품도 만들어 가족과 연인에게 선물할 수 있다. 그리고 꾸준히 공부한다면 생활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도예품들도 만들어갈 수 있다.

길 근방에 위치하여 접근이 편리한 곳도 있는가 하면 약간 산 속으로 들어가서 저수지와 녹차밭을 배경으로 녹차체험, 보름달 달집 만들기, 낚시 등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개인에서 150명 이상 단체까지, 하루 체험에서 MT, 정기 학습 코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한편 3월 24일에는 건축과 도자를 결합시킨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이 진례에 개관한다. 미

봄 꽃내음이 솔솔~ 자연을 벗삼아 흙 빚어볼까?

진례도예마을 도자기 체험과 대동화훼마을 농장 견학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설화가 곳곳에 서려있는 가야의 이천년 고도 김해. 김해 서편으로 가면 가야토기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진례도예마을이 나온다. 분청사기로 유명한 진례도예마을에 가서 나만의 개성 넘치는 도자기 작품을 만든 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3월 24일 개관)에서 세계적인 명장들의 건축도자 미술품을 감상한다면 도자기 문화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해 동편 낙동강변에 위치한 대동화훼마을에서는 장미재배 과정을 직접 견학할 수 있다. 마을 곳곳에 펼쳐진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면 드넓은 대지 위에 수줍게 봉오리를 드러낸 자주색, 노란색 등 아름다운 장미꽃을 만나게 된다. 풋풋한 장미향을 맡다 보면 어느새 꽃과 더욱 친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월 중순에 꽃이 많이 출하된다.



수로요 도예방에서의 도자기 체험

술관은 외벽을 수작업한 도자타일로 장식하고 바닥에는 수백 년 전 고성의 바닥돌을 깔아 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미술품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 개관과 함께 세계적인 건축도자 명인들의 작품을 전시할 도자전시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관(4월 1일 개관)을 갖추고 있어 도자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학습 공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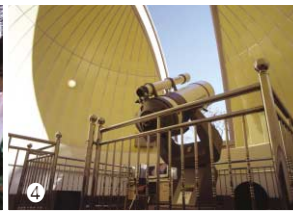
싱그러운 봄날의 향기에 흠뻑 취하는 화훼농장 견학

부산과 김해의 경계를 이루는 선암교를 건너서 바로 오른쪽으로 틀면 예안리 고분군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나온다. 고분군을 지나서 계속 가다보면 커다란 비닐하우스 단지가 나온다. 전국

최대 규모의 화훼재배지인 '대동화훼마을'이다.

비닐하우스만 보다가는 슬쩍 지나칠 수 있는 이곳.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수천 평의 대지를 뒤덮고 있는 파릇파릇한 장미나무와 보는 이의 시야를 간질이는 장미꽃 봉오리들이 수줍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노란색, 주황색, 핑크색 등 수백 가지 종류의 장미꽃과 국화, 카네이션에 둘러싸여 싱그러움 봄 향기를 흠뻑 들이마신 뒤에 농협에 위치한 수출농산물공동선별장에서 화훼 선별, 포장 과정을 견학하면 어느새 꽃과 더욱 친숙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어서 이천년 가야의 숨결을 느끼러 김해시내로 들어가 보자.



- ① 대동화훼마을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장미꽃 봉오리들이 하나 둘 꽃망울을 틔우고 있다.
- ② 대동화훼마을에서는 장미를 비롯 카네이션, 금어초, 거베라 등 갖가지 꽃들이 재배되고 있다.
- ③ 소비자들이 화훼공판장에서 꽃을 고르고 있는 모습
- ④ 김해천문대제 2관측실 ⑤ 김해천문대 전경
- ⑥ 천문대 관측모습

김해천문대 토성 탐사와 문화의 전당

김해에는 가락국의 왕자가 진례 토성 위의 상봉에 천문을 보기 위해 첨성대를 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2002년 2월 1일에 개관한 김해천문대는 이러한 가야 천문대를 현대에 와서 계승한다는 문화계승의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별을 직접 관찰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분성산 정상에 위치한 천문대에서는 김해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데, 특히 밤에 내려다 본 김해시 야경은 절로 방문객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일품이다.

김해천문대에는 2대의 대형 천체망원경과 6대의 소형 천체망원경과 자전실험장치인 푸코의 진자, 중력실험장치, 개기일식실험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전시실, 계절별 별자리, 태양계 탐

사 등 별자리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는 천체투영실이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낮에도 태양과 일부 별들의 관측이 가능하며, 2월 23일~5월 28일 토성축제 시기에는 직접 토성을 관찰한 뒤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아 갈 수 있다.

김해천문대 올라가는 길 우측 편에는 허왕후의 오빠인 장유화상이 세웠다는 은하사가 있다. 지금은 '달마야 놀자'의 촬영지로서 더 유명하다.

금관가야의 이천년 고도 김해 탐사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구지가와 함께 금관가야 시조 김수로왕의 난

여행정보

인터넷 웹사이트 :

- <http://tour.gimhae.go.kr> 김해시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 <http://doye.buncheong.net> 김해도예협회
- <http://www.suroyo.com> 수로요
- <http://daedong.invil.org> 대동화훼마을
- <http://astro.gsiseol.or.kr> 김해천문대

축제 및 행사정보

- 연지봄축제 : 4월, 연지공원
- 가락문화제 : 음력 3월 14일~3월 17일
- 김해녹차문화제 : 5월 27일~28일
- 가야세계문화축전(10월), 허황옥 실버문화축제(10월 초), 김해분청도자기축제(10월말), 진영단감축제(11월 초)



- ⑦ 수로왕릉
- ⑧ 대성동고분박물관
- ⑨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김해박물관까지 이어진 가야의 거리
- ⑩ 가야에서 일본까지 타고 갔다고 하는 가야배
- ⑪⑫ 연지공원의 낮(좌)과 밤
- ⑬ 연지공원의 야경과 분수쇼

생설화가 내려오는 구지봉, 김수로왕의 왕비인 허황후의 본국으로 추정되는 인도 아유타국에 전해 오는 쌍어문양이 그려져 있는 수로왕릉, 인도 아유타국의 돌과 재질이 같다는 파사석탑이 위치한 수로왕비릉 등 김해는 가야의 실체를 직접 느끼고, 설화와 전설을 유물, 유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외에도 가야에서 일본까지 타고 갔다는 가야배와 선사시대 집터를 복원한 봉황동 유적지, 지하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분을 체험할 수 있는 대성동고분박물관, 조기 신석기 유적지인 창녕 비봉리 유물과 가야 기마무사들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국립김해박물관은 살아 있는 역사 교육장이다.

대성동고분박물관 밖 활쏘기와 김해박물관의 봉황무늬전, 용무늬전 등의 탁본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요소이며, 봉황동유적지에서 대성동고분박물관을 거쳐 김해박물관까지 이어진 가야의 거리, 수로왕릉, 김해박물관을 통해서 바로 연결되는 구지봉과 수로왕비릉은 모두 좋은 산책로이자 공원이어서 관광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것이다.

가야 역사 탐방이 어느 정도 끝났다면 작년 말에 개관한 김해문화의 전당(김해박물관 맞은편에 위치)에서 수준 높은 공연들과 미술, 사진 등 전시회를 감상하고, 바로 앞에 있는 연지(호수)공원에서 음악분수, 조각분수를 관람하기를 권한다. 여행의 좋은 마무리가 될 것이다.

시청 관광과를 통해서 또는 각 유적지에서 문화해설사의 도움을 청한다면 더욱 알찬 역사 공부 가 될 것이다. 